

# “홍수·가뭄 도움 안돼”...기후대응댐 4곳 건설 추가 중단

### 윤 정부 추진 14곳 중 화순 동북천댐 등 7곳 중단...하천 정비 등 고려 안해 동북천댐 ‘동북댐·주암댐 사이 신규 댐 건설로 주민 극심한 반발’ 이유

환경부가 화순군 동북천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화순군 동북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정부는 순천시 옥천댐을 비롯한 전국 3개 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는데, 이들 3개 댐을 포함해 전국에 짓기로 한 14개 댐 가운데 7개 댐의 건설이 멈춰서게 됐다.

이번 결정은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환경부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댐 신설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다.

동북천댐의 경우 ‘기존 2개의 댐 사이 신규 댐 건설로 극심한 주민 반발’이 중단 이유로 꼽혔다.

동북천댐은 동북댐과 주암댐 사이에 위치하는 댐으로, 총 사업비 5300억원을 들여 총 저수량 3080만㎥, 일 용수공급량 16만2000㎥ 규모의 용수전용댐으로 계획됐다.

전남에서는 2022년 극한 가뭄으로 315일간 가뭄이 이어진 바 있었는데, 주수원지인 주암댐의 수량 부족에 따라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양분되면서 전남도가 직접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를 먹은 바 있다.

환경부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양수발전댐과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이상의 댐이 꼭 필요하다는 자료를 추가로 받지 못했다”면서 “(전 정부) 환경부가 수해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댐이 필요한 지역에 의견을 조화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후보지로 넣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댐 신설 추진을)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시작했는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전 정부 의사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수·치수 방안으로 댐도 검토됐다”면서 “이에 지자체 수요 조사를 실시, 수십 개 댐 신설 건의가 들어와 그 가운데 14개를 후보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 정부 댐 신설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면서 정책결정을 벌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북천댐은 주암댐 등 기존 수원과 보완적 역할이 기대됐다”며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에 댐 건설 외에 기존 수자원을 연계하는 대안도 검토됐던만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시, AI페스타서 AI·반도체기업 협력 강화

### AI·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등 논의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산업 동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페스타 2025’에 참석해 국내외 기업·전문가들과 교류하며 AI·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광주시는 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주), 보안반도체 전문기업 ㈜오스틴일렉트릭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강 시장,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재열 오스틴일렉트릭 대표, 오상진 인공지능사업 융합사업단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는 AI 인프라를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역기업 협력을 통한 산업 적용 및 상용화, 전문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중심도시 전략과 연계해 국산 반도체 기술 검증, 기업 성장 지원, 전

문 인재 양성사업을 이어가며 AI·반도체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리벨리온은 광주 AI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자사 AI 반도체(NPU) 성능을 시험하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서비스를 준비하는 지역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오스틴일렉트릭은 국방, 금융, 통신, 자율주행차 등 보안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자내성(PQC) 암호화 칩을 개발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실증·상용화를 추진한다.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 기술을 적용해 지역 산업의 보안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AI 데이터센터,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지역기업 협력 기반을 연결해 반도체 산업 육성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을 추석 성묘 댐 조화 대신 생화로”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 올해 추석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광주도시공사는 11월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설치된 플라스틱 조화를 전량 수거할 계획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시내버스 증차·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광주시, 특별교통대책 가동

### 추석 연휴 3~9일...특별교통대책상황실 운영도

광주시에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 귀성·귀경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증차·노선 조정과 주요 혼잡구역 교통관리, 전통신장 주변 주차장 단속 완화, 270여 개 공공기관·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묘객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시내버스를 탄력 운행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잇는 518번은 추석 당일(10월 6일) 차량 한대를 추가 투입해 30회 증차 운행한다.

월남동-태평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한다.

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전통신장 주변 도로의 주차장 단속을 시장별

지정 시간대에 한해 완화한다.

대상은 동구 대인·산수·남광주, 서구 양동·서부, 남구 무등·봉선·백운대성, 북구 말바우·두암·운암·동부·서방, 광산구 1913송정역(송정매일포함)·송정5일·우산매일 등 16곳이다.

월곡시장과 비야5일시장은 도로 여건상 완화가 어렵지만, 해당 권역을 포함해 공영·공공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위치와 운영 시간은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 카카오톡·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지원센터’ 건립

### 광주시, 657억원 투입...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거점 구축

광주시가 미래차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인 자율주행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건립에 나섰다.

광주 제조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자율주행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7월 지정한 제2기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다섯

곳 가운데 첫 착공이다.

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657억원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지상 2층, 연면적 2850㎡ 규모로 건립된다.

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 장비 21종이 갖춰지고, 기업 지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도 2028년까지 병행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자율주행 핵심부품(인자·제어·통신) 국산화 연구, 맞춤형 교육, 기업 상용화 지원까지 포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광주시는 미래차 특화단지 조성에 힘쓴 지역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상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에스오에스랩, KT,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연구진 등이었다.

광주시는 센터 건립이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미래차 대전환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실증 능력을 확보하고, 미래차 부품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해 ‘미래차 선도도시’ 위상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진국산단·빛그린산단·미래차국가산단 등 약 220만평 부지가 2023년 7월 지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원기소 서울약품주 Since1956 일반의약품

# 원기소플러스 정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원기소플러스는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효모·효소·유산균 복합제제

## 추석명절에는 “원기소플러스”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 유산균은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 효모속 베타글루칸은 혈관을 맑게 해줍니다
- ✓ 효모속 비오틴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장, 변비, 영양, 과식, 체감,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